

영광에 전국 최대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8일 1차 준공식...54억원 들어 영광 월평마을에 총 3MW 예정
주민주도형 개발이익 공유로 농촌소득 증대·소멸 위기 극복

영광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전남도는 8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주도해 전국 최대인 3MW 규모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1단계(1MW)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발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후 3년 만에 영광군, 마을주민과 함께한 성과물이다.

총 54억 원을 들어 염해간척지 5만㎡에 3MW 규모로 조성된다.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간다.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엔 2단계 2MW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남에선 현재 평균 60kW 규모의 22개 실증단계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 중이다.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 최대 규모 상용화 모델로 실증효과는 물론 지속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또 주민이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주민주도형 개발이익 공유 실현을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한다.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8000원씩 연간 142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또 영농형 태양광 단지 기반으로 월평마을은 향후 전국 지자체, 농민, 단체, 기관 등 견학과 시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촌소득 불균형 해소,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고,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영광 월평마을 태양광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돼 지역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은 AI 첨단산업 투자



8일 전남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열린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1단계(1MW)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실현을 유리하게 해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23GW까지 확대하고 주민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제도적 기반도 자체 마련

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기자재 연관산업과 RE100 수요기업 유치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여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영광=박효중 기자

함평군,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

“20억 확보”...대동면 월송리 65년 전통가옥 활용·프로그램 운영



함평군 ‘고향올래(GO郷 ALL來)’ 사업 계획도. (사진=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고향올래(GO郷 ALL來)’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소재 65년 된 전통가옥을 활용해 2026년까지 생활인구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인문학 중심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좌를 운영 중인 ‘호점모’를 중심으로, 전통음식 체험(매동포

레스트), 도예 공방(자기바라기) 등 대동면 내 문화 자원을 활용하며 도시와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규모 커뮤니티 운영과 지역민과의 교류 활동 등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객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공모사업을 계기로 대동면이 삶과 철학이 공존하는 인문학 마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생활인구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홍어의 맛과 전통을 만나다’

신안군, 15일 흑산 홍어축제

풍어제·시식회·삭힌 홍어먹기 등 프로그램 다채

신안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수산물인 홍어를 주제로 하는 ‘제11회 흑산 홍어축제’를 오는 15일 흑산도 예리항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홍어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풍어제, 흑산 홍어 시식회, 삭힌 홍어 먹기 대회, 홍어 깜짝 경매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인근 철새전시관과 고래공원 관람을 통해 흑산도의 또 다른 자연 환경적 가치를 배워갈 수 있다.

흑산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홍어의 주산지로, 깊은 맛과 부드러운 육질의 ‘흑산 홍어’는 지역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남도의 대표 진미로 꼽힌다.

매년 봄 개최하는 흑산 홍어축제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며 흑산 홍어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신안군은 홍어축제 개최와 함께 흑산 홍어의 명품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흑산 홍어 썰기 학교’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8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를 위한 QR코드 유통 체계도 갖추고 있다.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2021년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최근에는 목포시, 나주시와 함께 홍어 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도 체결했다.

흑산 홍어축제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흑산 홍어의 우수성과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널리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영암군, 전기이륜차에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총 25대

영암군이 2050탄소중립 실현,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지원자 신청을 받고 있다.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은 일반 17대, 우선순위 3대, 배달용 5대로 총 25대이고, 최대 구매 보조금 지원액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유형·규모·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암군민인 16세 이상 개인(사업자)과 법인이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에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

보조금 지원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등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보거나 영암군 기후변화대응팀(061-470-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동재 환경기후과장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7월까지 세외수입 채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무안군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7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채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채납액 징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채납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채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채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채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납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납부는 고지서 및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ATM, ARS(☎142-211), 위택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 군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채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과태료·징용료·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납세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61-450-5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